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올해 공직진출자 10명 배출

직류별 맞춤형 교육과정 성과

1998년 개교 이래 총 239명

(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2021-12-20 10:56 송고



자치행정학과 스터디© 뉴스1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가 올해에도 10명의 공직진출자를 배출, 그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20일 도립대 자치행정학과에 따르면 1998년 개교 이래 총 239명의 공직자를 배출했다.

올해 공직에 진출한 재학생은 일반행정직 6명, 사회복지·교육행정·경찰·군무원 각각 1명 등 총 10명이다. 이는 입학정원 대비 20% 이상 합격률이다.

이처럼 자치행정학과가 공직진출의 메카로 주목받는 이유는 공직진출에 필요한 직류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한 덕분이다.

특히 공직수험 과목 특강, 외부 전문가 특강, 면접 특강 등 사전 과정과 기관인성교육과 같은 사후과정을 결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정을 도입하면서 공직 진출의 분야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찬 총장은 “자치행정학과와 공직진출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공직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학생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진출자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